

전남연구원장 후보 논란 이번주 적격 여부 판가름

단독 추천 박기영 교수 '황우석 사태' 연루 등 과거 전력 도마 전공·연구 이력도 생물학에 한정...전남도, 이사회서 의결 논의

전남연구원(JNI)의 초대 원장으로 최근 단독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논란이 일면서 전남도가 고심하고 있다.

'세계로의 옹비'를 지향하며 중앙정부, 광주·전북 등과 연계한 미래 전남의 정책 발굴·연구·제시 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과거 정부에서 연구 윤리 문제에 연루됐던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초대 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무게감이나 참신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주 내로 이사회를 열어 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초대 원장 후보로 단독추천한 박기영 전 순천대 의생명과학과 교수에 대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교수를 원장 후보로 의결하면 전남도의 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게 된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에서 식물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94년부터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위원(2002-2003),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4-2006)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됐으나 2004년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전력 문제가 되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박 후보자는 전남도에서 주로 과학기술 분야 정책 자문·평가를 시작으로 한전공대, 블루이코노미, 방사광가속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사안에 있어 전남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전공, 연구 이력 등이 생물학에 한정된다는 활동 분야 역시 주로 과학기술 분야 정책·프로젝트로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총괄해야 하는 전남연구원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 트렌드를 내다보며 중앙정부, 광주·전북 호남권 지자체, 수도권·영남·강원·제주 등 비호남권 지자체 등과 관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전남에 이로운 정책과 사업들을 고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또 박 후보자가 전남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될 경우 과거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던 사안이 다시 불거지며 본인은 물론 전남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전남도는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 출신 인사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대상자들이 정문회, 거주지 이전, 낮은 대우 등을 이유로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7월 전남연구원 출범 이후 초대 원장 공모가 미뤄졌으며, 전남도의회는 지적을 받아 지난 1월 뒤늦게 공모에 들어갔으나 3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3명 가운데 2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1·2 순위 복수 추천이라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박 후보자가 단독으로 추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천위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해 전남도가 (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가지 논란을 포함해 이번주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연구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연구정책기관인 연구원장에 대해 청문회에서 능력이 아닌 자격을 검증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7곳이 현재 청문회 없이 원장을 초빙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전남도 역시 중앙에 있는 지역인사들이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1절 105주년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유공자 및 가족, 광복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 내빈들이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문화컨텐츠 기업, 순천에 1525억 투자

애니메이션 앵커기업 ㈜로커스, 본사 이전 등 200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지난 29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시, 애니메이션 앵커기업 ㈜로커스와 함께 '케이(K)-디즈니 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홍성호 ㈜로커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신설·이전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기업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전남도·순천시의 인재 양성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종합문화콘텐츠 기업인 ㈜로커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525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로커스 본사를 순천시로 이전해 앵커기업 스튜디오 및 콘텐츠 체험 공간을 조성, 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문화콘텐츠)를 추진, 순천시가 케이(K)-콘텐츠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에 이상갑 변호사

대외협력 보좌관에 정성학

광주시는 "지난 29일 이상갑(사진)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선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업과 기업 관련 법제 연구, 스타트업 기업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등 경제 분야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자격 심사, 결정사유 조화 등을 거쳐 오는 7일 임명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광주 서석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9일 정성학 전 한전KDN 상임감사를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정 보좌관은

17~20대 국회 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국민 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올 전기차 2607대에 보조금

승용차 최대 1020만원·화물 1420만원·승합 7000만원

광주시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전기차 2607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 승용차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

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차상위 이하 승용차 구입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청년 전기승용차 최초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등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 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대행 신청도 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AI 도정에 접목...챗GPT 인재 양성

전남도가 챗지피티(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AI를 도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9일 도정 서재발실에서 열린 2024년 첫 정보화위원회에서 전남도정보화위원 20여 명은 '2024년 정보화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시행 계획은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보호 체계 강화,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활

용, 원스톱 정보통신 민원처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현 등 6개 분야 140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인재양성 방안' 토론을 통해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